

동아시아 기업가 교류프로그램을 실시

-오사카, 간사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에서는 오사카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사카, 간사이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합계 10 개사의 최고경영자들을 10 월 16 일부터 5 일간에 걸쳐 오사카로 초빙하여 일본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회기중에는 오사카에 있는 기업과의 개별상담을 87 건 주선하는 등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의 전문가가 일본에서의 회사설립 방법이나 인재의 중도채용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 아울러, 이미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나 임시 사무실 등도 방문, 시찰을 하였다.

작년 참가기업 중에는 상하이 성봉연건유한공사가 오사카로의 진출을 결정하였으며 회기중 앙케이트에서는 이번 참가기업 중 2 사가 1 년 이내를 목표로 일본에 거점을 두고싶다고 회답. 앞으로 O-BIC 가 중심이 되어 지원해 나가기로 함.

